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최 옥 금*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인 근로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했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6개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정의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Multivariate hazard mod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분석 대상인 652명 중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적 이행률이 채 10%가 되지 않아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빈곤정책의 목표가 '고용중점목표(Work Goal)'에서 '소득중점목표(Income Goal)'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일자리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서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은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OECD 기준 빈곤률은 1997년의 9.7%에서 1998년과 1999년 상반기에 약 17.6%와 17.8%로 경제위기 전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계측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도 1997년 4.2%에서 1998년과 1999년 평균 9%로 증가하였다(유경준, 2000). 또한 노동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이전의 빈곤과는 달리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이 새롭게 등장했다(구인회, 2002; 송호근, 2002; 금재호, 2003).

새로운 빈곤집단인 근로빈곤층¹⁾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로, 노동시간 부족과 임금률 감소로 인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한 낮은 임금, 그리고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itan · Gallo · Shpiro, 1993; Blank, 1996; Rima, 1996; Schiller, 1998; 구인회, 2002; 이태진, 2003).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상용직과 같은 안정 취업층이 감소하고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업층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며, 미국과 같이 노동시장이 유연한 곳에서 근로빈곤층이 이미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와 이들의 빈곤원인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²⁾과 그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빈곤이행과 탈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변화라는 점이다(Bane & Ellwood, 1986; Blank, 1996; 금재호 · 김승택, 2001; 구인회, 2002; 금재호, 2003; 홍경준, 2004). 특히, 근로소득의 변화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변화는 고용형태, 즉 일자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빈곤층의 빈곤탈출에 있어 단순히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빈곤의 이행과 탈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해 지지되는데, 취업여부가 아닌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과 같은 가구주 고용상태의 변화가 빈곤 진입과 탈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이병희(2002)의 연구,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취업자가 있는 근로빈곤층이며, 취업자가 있는 근로빈곤층의 14% 정도가 빈곤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취업 그 자체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주장한 금재호(2003)의 연구, 빈곤 탈출에 있어 가구주 및 가구원의 취업과 실직보다는 이들의 직종 및 업종의 변화, 종사상 지위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와 같은 가구의 취업특성이 더 중요함을 제시한 홍경준(2004)의 연구, 그리고 취업여부 뿐만 아니라 정규/비정규직으로의 변화와 근로시간 변화가 빈곤탈출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한 임세희(2004)의 연구는 취업 자체 뿐 아니라 취업의 질이 중요함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취업의 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나라 빈곤정책을 통해서는

1) 'Working Poor'의 정의는 연구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등 다양한 의미로 지칭되어 왔다. 또한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빈곤노동계층(송호근, 2002), 근로빈민(Bradley R. Schiller, 1998), 근로빈곤계층(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빈곤근로자(이주희, 1998)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빈민과 빈곤근로자라는 용어는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가 크고, 빈곤노동계층, 근로빈곤계층 등 계층의 의미는 다른 계층과의 서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에서 빈곤이라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Working Poor'를 '근로빈곤층'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여러 논의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정의할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3장 연구방법의 변수정의 및 측정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2) 'Decent job'은 최근 빈곤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구되고 있는 개념으로,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자리의 개념을 ILO에서 제시, 정의한 것이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괜찮은 일자리' 정도가 될 것인데, 이후에는 '괜찮은 일자리'로 명명할 것이며, 이의 개념과 지표는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빈곤정책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고용 중심의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고용전략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립’을 강조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의 실행으로, 이는 가구소득의 증가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전략을 중시하는 것이며, 둘째는 ‘재활’을 강조하는 ‘근로중점 목표’(Work Goal)의 실행인데 이는 노동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Blank, 1996; 홍경준, 2002).

2002년부터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빈곤탈출의 목적이 고용전략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의 목표는 ‘노동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활, 자립대책을 마련하여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제시되어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성과 중 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평균 최저생계비 충족률은 6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빈곤탈출 성과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병구, 2002). 즉, 자활사업의 공식적인 추진방향은 ‘소득중점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활사업은 ‘근로중점 목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빈곤층의 고용전략에 있어 ‘소득중점 목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와 빈곤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취업 그 자체가 아닌, 취업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등장은 한국 빈곤층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새로운 빈곤정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근로빈곤층의 고용형태 변화 및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은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인 빈곤탈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므로, 그러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정책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빈곤진입과 탈출을 연구하면서 부수적으로 근로빈곤층의 등장을 언급한 연구들(구인회, 2001; 금재호, 2002; 이병희·정재호, 2002; 임세희, 2004; 홍경준, 2004)이 대부분이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주희, 1999; 송호근, 2002, 이태진, 2003; 홍경준, 2003)가 존재하나, 이들은 주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성격을 갖는 연구들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근로빈곤층의 고용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노동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특성 및 고용형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김철희, 2003)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고용형태를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취업의 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6개년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근로빈곤층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을 정의하고,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을 밝힌다. 또한 ‘취업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근로빈곤층의 정의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은 연구자의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적용³⁾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진재문, 2001; 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혹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연소득이 너무 낮아 4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모든 근로자’(Gorham and Harrison, 1990; Schiller, 1998),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Levitan · Gallo · Shpiro, 1993; 금재호, 2003) 등으로 지칭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정의했을 때에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했을 경우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근로빈곤층을 과대추정 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둘째,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연소득이 너무 낮아 4인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 없는 모든 노동자’라고 정의했을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해 근로빈곤층을 과소추정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노동자’로 정의했을 때에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경우 항상 일정한 고용상태에 종사하기보다는 정규직 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 임금근로, 혹은 고용상태에서 실업과 비경제활동을 반복하고 있다⁴⁾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종단적 자료를 가지고 근로빈곤층을 연구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연구기간 동안 근로경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근로빈곤층으로 정의될 것인지, 만약 그 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노동부의 정의이다. 여기서는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 중 27주)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3) ‘근로’와 ‘빈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개념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송호근(2002)의 연구에서는 ‘빈곤노동계층’으로, 홍경준(2003), 이태진(2003)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계층’으로, 금재호(2002)에서는 ‘일하는 빈곤가구’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주희(1998)에서는 빈곤근로자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가 사용하는 자료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나 근로빈곤층의 빈곤개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빈곤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송호근, 2002; 금재호, 2003; 이태진, 2003; 홍경준, 2003 등).

4) 빈민의 확실한 특성은 노동상태의 높은 유동성이라 할 수 있다. 빈민들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왔다갔다한다. 즉, 일을 그만 둔 사람이 그 다음 주에는 일을 하거나 직업을 구하기도 한다(Schiller, 1998).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http://www.bls.gov/cps/cpswp2000.htm)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포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고용상태가 자주 변화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의 중 가장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부의 정의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규정하도록 한다.

2.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과 지표

괜찮은 일자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이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좋은 일자리(Good Job)⁵⁾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과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좋은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성취를 가늠해주는 개념으로, 그동안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임금을 강조하는 경제학적 접근법, 직업위세에 중점을 두는 사회학적 접근법, 주관적 만족도에 집중하는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방하남·이상호, 2004). 그러나, 좋은 일자리(Good Job)는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진 근로빈곤층이 접근하기에 매우 제한된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일자리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좋은 일자리(Good Job)와 비슷한 개념이면서, 최근 ILO에서 빈곤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최근 ILO에서 출간한 보고서(Richard Anker, Igor Chernyshev, Philippe Egger, Farhad Mehran and Joseph Ditter, 2002)⁶⁾에 의하면 ‘괜찮은 일자리’는 ‘자유, 공평 안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조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적 기준에 맞는 생산적 노동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를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변환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② 적합하지 않은 노동(Unacceptable work)제외, ③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④ 적절한 시간(Decent hours), ⑤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⑥ 노동과 가족 생활의 결합(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⑦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한 처우(Fair treatment in employment), ⑧ 안전한 노동 환경(Safe work environment), ⑨ 사회 보호(Social protection), ⑩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⑪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개념(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Job)이다.

여기서 ①과 ②는 노동조건에 있어서 기본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머지 항목들이 고용의

5) 좋은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상당부분 방하남·이상호(2004)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미리 밝혀둔다.

6) 이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로 ‘Decent Work’라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Work에는 일자리라는 개념보다는 ‘노동’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 ‘Decent Job’의 개념을 활용한다. 이후 괜찮은 일자리 정의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다.

질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염두에 둔 고용의 질이며, 이들의 빈곤탈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의 질은 임금 증가, 근로시간 증가와 관련된 항목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으로 ③ 적절한 임금과 생산적 노동 ⑤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을 포함시키고, 사회 보호가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노동을 못할 상황에서 이들의 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⑨ 사회 보호를 포함시킬 것이다⁷⁾. 또한 노조가 있는 일자리의 경우 노조가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에 근거하여(배무기, 1990; 정인수, 1991; 김장호, 1991; 어수봉·이태현, 1992; 방하남, 1996; 김우영·최영섭, 1996; 조우현·유경준, 1997; 강창희, 2003) ⑩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에 대한 항목을 괜찮은 일자리 개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물론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을 ③, ⑤, ⑨, ⑩ 항목으로 한정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는 일자리라면 그 외 다른 항목도 포함할 것이라는 판단과, 연구의 초점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에 비임금일자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비임금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취업자 21,362천 명 중 비임금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8,023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고용주가 19.6%, 자영자가 57.3%, 가족종사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주의 비중도 28%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낮은 미국의 8.1%에 비해 3.5배나 높은 비율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0).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에 비임금일자리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임금일 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인하여, 둘째, 비임금일 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세 자영업의 경우 분명 취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은 취약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비임금일 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⁸⁾.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이 망하고 재창업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2004년 8월 3일자 한겨레신문). 이는 2004년 1분기 가구주 근로자 외 가구에서 가구주 사업소득은 132만원인데 비해 근로자 가구에서 가구주 근로소득은 217만원이라는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비임금일 자리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의 요소인 적절한 임금과 노동의 지속성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⁹⁾.

7) 여기서의 사회보호란 사회보장, 사회적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보호의 목적은 임금노동자와 가족의 경제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나병균, 2002)을 주목하여 사회보호가 잘 되어있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8)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999년 종업원의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67.4%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9)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 같은 비임금근로자가 아니라 임금노동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에 임금일자리만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3.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이동이 아닌 고용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고용형태 변화와 그에 따른 결정요인을 밝힌 연구로는 장지연·호정화(2001), 류기철(2001), McCall(1997) 등이 있다. 장지연·호정화(2001)의 연구에서는 여성미취업자의 실업탈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가구주 여부, 근로소득 유무, 가구 소득 등으로 상정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업탈출과정을 정규임금, 비정규임금, 비임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가구주, 연령, 학력, 결혼 유무, 자녀 유무, 근로소득 유무, 가구 소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류기철(2001)의 연구에서는 정규직 재취업, 비정규직 재취업, 자영업 재취업으로 나누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연령, 학력, 혼인상태, 경력, 직전 직장의 성격, 노동시장 관련 변수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McCall(1997)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규직 재취업과 비정규직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남성과 여성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직 기간, 가구주, 연령, 학력, 직장의 노조 여부, 실업보험 수급 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경제력의 편차로 인해 지역 간 노동수요 구조가 다르고 이것이 차별화된 지역노동시장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가설에 입각한 지역단위의 노동시장 차별론이 제기되고 있다(전병유, 2003a). 만약 이러한 주장대로 지역 단위의 노동시장이 차별화 되어 있다면, 따라서 각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 능력과 노동정책과 경제 및 산업정책이 다르다면, 근로빈곤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과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개인적 요인, 직전 일자리에서의 지위와 경력을 포함하는 노동시장경력 요인, 복지의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공공부조 수급 여부, 그리고 지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이론적으로는 공공부조 수급 여부가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1998년의 한국노동패널자료에는 이전소득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이상은, 2004; 정진경, 2004)에서도 우리나라 빈곤층의 경우 복지의존성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지의존성 요인은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것이 노동자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한겨레신문).

III. 분석방법

1. 연구대상

가. 빈곤선 설정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의 개념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빈곤의 개념 중 어떠한 것을 채택할 것인지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측정개념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빈곤의 개념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누어지는데, 절대적 빈곤은 빈곤을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 즉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결정하는 것이며,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여 특정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기준 이하를 빈곤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2).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빈곤층이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잦고,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다는 점(구인회, 2001)과,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절대적 빈곤의 개념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이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금재호·김승택, 2001; 김철희, 2002; 금재호, 2003)에서 상대적 빈곤개념을 활용했다는 것에 주목하여 빈곤선의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상대적 빈곤을 분석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평균소득을 빈곤선의 기준으로 상정할 경우 소득불평등을 강조할 수 있으나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분포상의 낮은 부분에 위치한 사람들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2).

본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의 빈곤은 소득불평등의 개념보다는 소득분포상의 낮은 부분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빈곤선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며, 현재 유럽에서 중위소득의 6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중위소득 60% 이하를 빈곤선으로 상정하도록 한다.

나. 근로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에서 2003년까지의 종단적 연구를 시행할 것

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 노동부의 정의를 받아들여 ‘빈곤가구에 속한 사람들 중 적어도 반년(1년 중 27주)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고용되어 있거나 혹은 그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연구에서 이용할 한국노동패널에 대입하여 정규직 임금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비임금근로자, 실업자라고 응답한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이며, 근로능력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실업자 중 실업의 이유가 건강상의 문제나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실망실업자도 근로빈곤층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¹⁰⁾.

이렇게 정의할 때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모두 근로빈곤층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1998년. 즉, 연구시작시점에서의 근로빈곤층만을 연구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의 주제는 근로빈곤층의 팬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이므로 연구기간 6년 모두 근로빈곤층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연결하여 활용하는 경우 사례의 누락이 발생하며, 누락된 사례의 대부분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빈곤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홍경준,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작 시점(1998년)에서의 근로빈곤층을 연구대상으로 상정하도록 하겠다. 한편,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2003년에 65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1998년에 15세에서 59세 사이의 근로능력자이며, 세부적인 근로빈곤층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근로빈곤층의 조작적 정의

근로빈곤층		정의
취업자	임금근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 중 고용되어 있었던 사람
	비임금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가게, 식당 주인 혹은 농림수산업자
미취업자	실업자	미취업자이면서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고 지난주에 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지난 1주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난 1주 동안 적당한 일자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 (실망실업자)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실업자로는 볼 수 없으나, 구직을 포기한 이유가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 포기한 경우’ 이거나 ‘현재 근로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 : 1) 1998년의 중위소득 60% 이하를 빈곤선으로 상정.

2) 15~59세 사이의 근로능력자

10) 앞에서 살펴본 미국 노동부의 정의 중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에 포함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의를 따랐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실망실업자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기간 6년동안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근로빈곤층으로 포함시킬 것이다.

다. 자료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98년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에 걸쳐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1차 패널자료에서 연구대상을 추출한 다음, 이를 취합(Merge)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 중 가구자료에서 빈곤선 이하에 속한 가구를 추출하였으며, 개인 자료에서 연령, 근로능력여부, 취업상태, 구직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추출하여 이를 가구자료와 개인고유번호(pid)로 취합하였다. 또한 2차, 3차, 4차, 5차, 6차 자료는 필요한 변수를 가구, 개인, 신규자료에서 추출한 후, 개인자료와 신규자료는 개인고유번호(pid)로 취합(Merge)하고, 이렇게 취합된 자료를 다시 가구번호로 가구자료와 취합하였으며, 이를 다시 98년의 근로빈곤층을 추출한 자료와 취합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98년에는 연구대상인 근로빈곤층이었으나 99년에 누락되었다가 00년에 다시 응답한 사례의 경우는 분석에 이용하지 않았다. 즉, 98년, 99년, 00년에는 응답하였으나 01년에 누락되고, 다시 02년에 응답한 자료의 경우 00년까지의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변수의 측정

가. 종속변수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괜찮은 일자리의 이행률(Hazard Rate)이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가와, 그것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ILO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Richard Anker, Igor Chernyshev, Philippe Egger, Farhad Mehran and Joseph Ditter, 2002)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 우선 적절한 임금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금은 임금률과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임금률과 노동시간으로 나누어서 측정하는데, 임금수준은 중위 임금의 50%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6일, 1년에 50주 이상의 노동을 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이는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목을 전일제 일자리로 간주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인데, 임시직, 일용직일 경우 노동의 보장과 지속성에 있어 불안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측정 지표로 상용직 일자리를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보호에 관한 부분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과 작업장 관계에 있어서는 노조가 존재하는 일자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전일제 일자리이면서 상용직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되어 있고 노조가 있는 일자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분석에서 노조관련 변수를 부득이하게 포함시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이용할 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노조변수는 결측값이 너무 많아 분석에 투입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

의 이행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노조 변수를 포함시킨 근거는 노조가 있을 경우 임금효과가 있고, 이것이 적절한 임금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의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이었으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노조변수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괜찮은 일자리의 구성 요건에 중위임금의 50%이상이라는 임금 관련 변수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한편, 괜찮은 일자리를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중위임금의 50%와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노동패널에서 1998년의 중위임금은 60만원, 1999년의 중위임금은 90만원,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위임금은 100만원, 2003년의 중위임금은 120만원이었다. 1998년은 IMF 직후이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낮아 제외하였으며, 2000년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9년의 물가상승률은 0.978, 2001년의 물가상승률은 1.041, 2002년의 물가상승률은 1.069, 2003년의 물가상승률은 1.107이었다. 따라서 각 년도의 중위임금의 50%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평균은 490,032원이었으며, 이를 괜찮은 일자리 정의에 이용하였다.

<표 2> 괜찮은 일자리 개념 중 중위임금

	임금 중간값	중위 50%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적용 후	평균
1999년	900,000	450,000	0.978	460,122	490,032
2000년	1,000,000	500,000	1.000	500,000	
2001년	1,000,000	500,000	1.041	480,307	
2002년	1,000,000	500,000	1.069	467,726	
2003년	1,200,000	600,000	1.107	542,005	

자료 : 한국노동패널 1차-6차 조사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지는데, 1999년의 한국노동패널자료에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변수 중 산재보험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산재보험의 경우 2000년부터 전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4가지 측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이를 생존분석을 통해 이행률을 구한 후, 실제 분석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3>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이행률(Hazard Rate)	중위임금의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월 평균 임금 490,032원 이상
	전일제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	전일제 일자리
	상용직 일자리라고 응답한 경우	상용직 일자리
	사회보험이 적용된다고 응답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

나. 독립변수의 측정

독립변수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규모를, 인적자본요인으로 학력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개인적 요인으로 거주지역을 활용하였다. 또한 노동시장경력 요인으로 작년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¹¹⁾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측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항목	변수유형	변수정리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준변수: 여성) 성별 1	더미변수	남성을 의미
		연령	비율변수	만나이로 측정
		(기준변수: 미혼) 혼인상태 1	더미변수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상태 2	더미변수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인적자본요인	가구규모	비율변수	동거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수로 측정
		학력	비율변수	교육년수로 측정
	노동시장경력 요인	(기준변수: 미취업자) 작년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1	더미변수	가족종사자
		종사상 지위 2	더미변수	자영업자
		종사상 지위 3	더미변수	고용주
		종사상 지위 4	더미변수	일용직
		종사상 지위 5	더미변수	임시직
		종사상 지위 6	더미변수	상용직
		(기준변수:미취업자)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1	더미변수	행정·기타서비스업
		” 산업 2	더미변수	금융·보험·부동산업
		” 산업 3	더미변수	운수·창고·통신업
		” 산업 4	더미변수	도소매·숙박·음식업
		” 산업 5	더미변수	전기·수도·건설업
		” 산업 6	더미변수	제조업
		” 산업 7	더미변수	1차 산업
		(기준변수: 미취업자)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1	더미변수	단순노무직
		” 직종 2	더미변수	기능직
		” 직종 3	더미변수	농어업
		” 직종 4	더미변수	판매·서비스직
		” 직종 5	더미변수	사무직
		” 직종 6	더미변수	전문관리직
		(기준변수: 중소도시) 거주지역 1	더미변수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종속변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명목변수	이행할 경우 1, 이행하지 않으면 0

11)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은 6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조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경력 요인으로 직전 일자리가 아닌 전년도 일자리 관련변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람의 일자리 관련 변수는 2001년도의 일자리 변수로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이행이 '이직'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기존 일자리에서 임금률의 상승과 같은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음을 밝힌다.

3. 분석방법¹²⁾ 및 분석모형

가.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관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관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종속변수)으로 관찮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상정할 것이며, 출발점(Origin)과 종착점(Destination) 사이에 단 한번의 전환과정만이 존재한다고 전제할 것이다. 즉, 복수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¹³⁾.

한편, 생존분석을 위한 자료에는 자료의 중도절단 문제가 존재한다¹⁴⁾(Allison, 1984). 이는 생존분석이 종단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이 모두 알려져 있거나(Completed Spell Data), 시작시점은 알려져 있지만 종료시점은 알려지지 않은(Right Censored Incompleted Spell Data) 자료를 활용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우측중도절단 자료와 절단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의 방법 중 Kaplan-Meier Method를 이용하도록 한다.

나.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관찮은 일자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관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관찮은 일자리 이행률(Hazard Rate)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생존분석(Discrete-time Multivariate Hazard Model)를 통해 분석한다. 비연속시간 모형(Discrete-time)을 이용하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에서 관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연 단위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변수에 대한 것이다. 노동시장 변수인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등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산업 변수를 투입한 모형 1과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직종 변수를 투입한 모형 2,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종사상 지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을 통해 다변량 생존분석(Discrete-time Multivariate Hazard Model)을 수행하였다¹⁵⁾.

12) 분석도구로는 SAS v.8.1과 STATA V.8을 활용하였다.

13) 복수주기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번의 이행(사건 발생)만을 가정하고 복수주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14) 자료의 중도절단이란 관심을 가지는 기간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작시점이나 사건발생시점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우측 절단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관심을 가지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좌측절단은 시작시점이 알려지지 않아 관심을 가지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이다.

15) 산업과 직종 모두를 변수로 투입한 다른 연구의 경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산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거나(송호근, 2003; 류기철, 2001), 세부적으로 분류할 경우 모형을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다. 모형을 따로 나누어서 분석한 연구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김교성·반정호(2004)의 연구가 존재한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성과 기술통계치

가.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1998년 패널 전체 가구에서 빈곤가구만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월 평균 소득이 0 또는 무응답인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서로 다른 가구 규모를 가진 가구원들 사이의 생활수준을 동질화시키기 위해 가구 균등화 지수¹⁶⁾를 이용하여 가구 규모를 균등화시켰다. 이런 작업을 통해 구한 1998년의 중위소득은 707,213원¹⁷⁾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60%를 구하면 424,328원이다.

이후에는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들 중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은 1차 년도에 841명, 2차 년도에는 714명, 3차 년도에는 632명, 4차 년도에는 561명, 5차 년도에는 513명, 6차 년도에는 472명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1998년 근로빈곤층의 표본 유지율은 56% 정도로, 한국노동패널의 6차 년도 표본 유지율인 77%에 비해 적은 수치인데 이는 한국노동패널에서 누락된 사례의 대부분은 빈곤층에서 발생한다는 선행연구(홍경준, 2004)의 결과와 유사하다.

나.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결과를 통해 1998년 근로빈곤층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부터 살펴보자. 성별은 남성이 51%정도로 여성에 비해 3%정도 많았다. 이는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가사, 육아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을 제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은 평균 39세로 근로 가능한 연령대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미혼이 26%,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례가 가장 많은 63%,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사례가 10%를 차지하였는데, 이를 가구규모와 연관시켜 살펴보면, 가구 규모는 평균 3.91로 대부분의 근로빈곤층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역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이 53%이고,

16) OECD(1994)에서 제시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값은 1인 가구 1.00, 2인 가구 1.414, 3인 가구 1.732, 4인 가구 2.000, 5인 가구 2.236, 6인 가구 2.449, 7인 가구 이상은 2.646이다.

17)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으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 같은 자료인 한국노동패널로 98년의 중위소득을 구한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이 약 66만 5천원으로, 안종범·김철희·전승훈(2002)의 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이 약 6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이전소득을 가구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본 연구의 중위소득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이외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은 46%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의 경우 교육년수가 평균 9.86으로 중졸 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8년 근로빈곤층의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자가 약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상용직이 25%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이 8%, 일용직이 약 11%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⁸⁾. 또한 자영업자가 25%, 미취업이 17%, 가족종사자가 10%, 고용주는 3%로 나타났는데,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합친 비중은 35%로 비임금일자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 이었으며 그 다음이 제조업과 1차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고소득이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인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나 공공, 행정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직종은 대부분이 판매·서비스직이었으며, 그 다음이 기능직, 농어업, 단순노무직 등이었다. 산업과 직종별로 분석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근로빈곤층 중 1차 산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결여되었던 1차 산업 분야의 일자리 질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본 절에서는 생존분석, 특히 Kaplan-Meier Method를 실시하고,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른 이행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년도별로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살펴본 후,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살펴 보도록 한다.

가. 년도별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결과,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복수빈곤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전체 표본 중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근로빈곤층은 50명이며, 각 년도별로 누적 이행률을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3.68%, 2001년도에는 6.22%, 2002년도에는 7.71%, 2003년도에는 8.88%로 채 10%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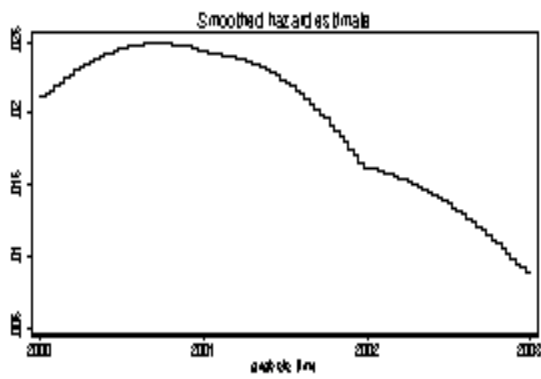
<표 5> 년도별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18) 최근 연구(김유선, 2004)에 의하면, 임시·일용직과 상용직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상용직의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첫째, 상용직의 일자리가 실제로 점점 불안정적인 일자리로 변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용직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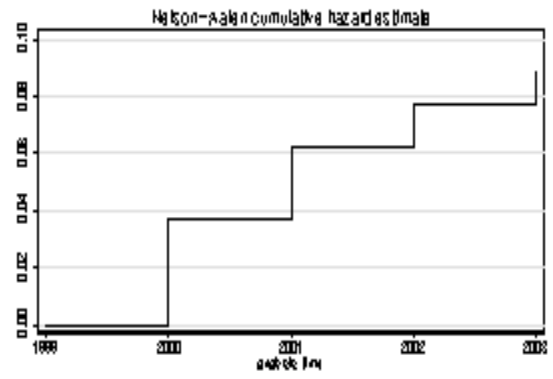
년도	유효표본수	괜찮은 일자리 이행	우측절단	누적이행률 (Nelson-Aalen Cum. Haz)	표준오차 (S.D)
2000	652	24	76	0.0368	0.0075
2001	552	14	68	0.0622	0.0101
2002	470	7	38	0.0771	0.0116
2003	425	5	420	0.0888	0.0127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년도별 괜찮은 일자리 이행함수



[그림 2] 년도별 괜찮은 일자리 누적 이행률



나.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1) 성별

분석결과, 여성보다는 남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여성	남성
2000.5	0.0316	0.0428
2001.5	0.0483	0.0783
2002.5	0.0596	0.0979
2003	0.0720	0.1089
통계적 유의도	2.20	

주 : 1) Kaplan-Meier Method에서는 2000-2001 사이의 이행률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중위기간으로 시간이 표시된다.

2) 2003년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2003년의 중위기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3) *=p<.05, **=p<.01

2) 연령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관촬은 일자리 이행률의 차이와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속변수를 범주형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연령의 평균값은 39.2세였기 때문에, 40을 기준으로 40세 이하와 40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범주형으로 나눈 연령별 관촬은 일자리 누적 이행률은 다음과 같다.

<표 7> 연령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40세 이하	40세 이상
2000.5	0.0643	0.0161
2001.5	0.1086	0.0305
2002.5	0.1509	0.0335
2003	0.1944	0.0335
통계적 유의도	28.52**	

주 : *=p<.05, **=p<.01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0세 이하가 40세 이상에 비해 관촬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에 따른 관촬은 일자리 이행률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40세 이하가 40세 이상에 비해 관촬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혼인상태

혼인상태에 따른 관촬은 일자리 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의 미혼 이행률이 10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에 미혼인 근로빈곤층이 모두 관촬은 일자리로 이행했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괜찮은 일자리에 있던 사람을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미혼의 경우 2001년도의 이행률은 0%으로 나타난다.

또한 혼인상태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년도별로 경향을 보이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는 위험하나,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혼일 경우가 이행률이 가장 높았으며, 기혼이면서 무배우자일 경우가 그 다음,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순으로 이행률의 크기가 나타났다. 미혼일 경우 이행률이 높은 것은 연령과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이러한 생각은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상태가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 밝히기로 한다

<표 8> 혼인상태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미혼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기혼이면서 무배우자
2000.5	1.0000	0.0139	0.0818
2001.5	0.0000	0.0320	0.1242
2002.5	0.0656	0.0410	0.1242
2003	0.1091	0.0509	0.1242
통계적 유의도	33.09*		

주 : *=p<.05, **=p<.01

4) 가구규모

다음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가구규모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8로 연속변수이므로 이 변수 또한 Kaplan-Meier Method를 하기 위해서 범주형으로 나누어야 한다. 가구규모의 평균값은 3.91이므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9> 가구규모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4인 가구 이하	4인 가구 이상
2000.5	0.0269	0.0420
2001.5	0.0601	0.0625
2002.5	0.0660	0.0824
2003	0.0772	0.0945
통계적 유의도	0.50	

주: *=p<.05, **=p<.01

<표 9>에서와 같이, 가구 규모가 클수록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구규모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 학력

학력변수 또한 가구규모, 연령 변수와 같이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범주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학력변수의 평균값은 9.86이므로, 중졸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인 경우와 중졸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10> 학력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중졸 이하	중졸 이상
2000.5	0.0177	0.0575
2001.5	0.0339	0.0945
2002.5	0.0376	0.1244
2003	0.0416	0.1470
통계적 유의도	15.78**	

주 : *=p<.05, **=p<.01

<표 10>에서와 같이, 중졸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행률 검증 결과, 학력에 따른 이행률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결론적으로, 중졸 이상이 중졸 이하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6) 거주지역

분석결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근로빈곤층에 비해 이행률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한국노동패널은 도 단위까지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지역을 분류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검증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거주지역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중소도시	대도시
2000.5	0.0361	0.0375
2001.5	0.0551	0.0686
2002.5	0.0594	0.0936
2003	0.0731	0.1033
통계적 유의도	1.01	

주 : *=p<.05, **=p<.01

다.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 분석

1) 작년도 일자리의 산업

산업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을 살펴본 결과, 2000년에서 2003년까지 1차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는 없었다. 한편,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통신업이었으며, 금융·보험·부동산업도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또한 제조업도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산업이 ‘좋은 일자리’ 혹은 ‘괜찮은 일자리’에 부합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좋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인 산업은 행정·기타서비스업이며, 그 다음은 도소매·숙박·음식업으로, 이러한 서비스업이 대부분 ‘저급한 일자리(Lousy Job)¹⁹⁾’인 것을 생각할 때 서비스업이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될 확률도 낮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산업없음으로 분류된 미취업자들도 이행률이 4%~6%대로 꽤 높았는데, 이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노동상태가 매우 유동적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반복한다는 Schiller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Schiller, 1998), 직전 년도에 미취업자인 사람들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산업의 종류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산업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미취업자	행정 기타서비스업 20)	금융·보험 부동산	운수·창고 통신업	도소매·숙 박음식업	전기·수도 건설업	제조업	1차산업
2000.5	0.0357	0.0400	0.0541	0.1364	0.0168	0.0392	0.0946	0.0000
2001.5	0.0441	0.1006	0.1874	0.1919	0.0240	0.0392	0.1523	0.0000
2002.5	0.0441	0.1223	0.2274	0.3030	0.0420	0.0392	0.2023	0.0000
2003	0.0620	0.2013	0.2274	0.3030	0.0420	0.0392	0.2023	0.0000
통계적 유의도			42.50**					

19) 이에 대한 내용은 Esping-Andersen의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cs'을 참조하라.

20)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서비스업으로, 흔히 일컬어지는 서비스업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직종 분류와 비교하면 알 수 있는데, 직종 분류에서 서비스업은 대인 및 보호서비스(여행접대 요원, 가사 및 음식서비스, 개인 서비스), 판매원, 선진원으로 세부 분류되어 있다. 이를 산업에 적용한다면, 도소매·숙박·음식업을 흔히 일컫는 서비스업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주 : *=p<.05, **=p<.01

2) 작년도 일자리의 직종

가장 높은 이행을 보인 직종은 사무직이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직종 자체가 괜찮은 일자리에 부합하거나, 혹은 이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자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은 이행을 보인 것은 전문관리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직이 높았다. 특이할만한 것은 단순노무직과 미취업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이행률이 14%, 6%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과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농어업근로자와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낮은 이행을 보였는데, 이 또한 산업과 마찬가지로 1차산업과 서비스의 낮은 일자리 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직종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미취업자	단순노무직	기능직	농어업	판매·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2000.5	0.0357	0.0598	0.0541	0.0098	0.0000	0.1333	0.0638
2001.5	0.0441	0.1198	0.1102	0.0098	0.0000	0.2912	0.1165
2002.5	0.0441	0.1198	0.1497	0.0098	0.0097	0.2912	0.2074
2003	0.0620	0.1461	0.1497	0.0098	0.0097	0.3821	0.2574
통계적 유의도			52.49**				

주: *=p<.05, **=p<.01

3) 작년도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서 특이한 점은 가족종사자와 고용주의 이행률이 모두 0%라는 것과 자영업자의 이행률이 0.6%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할 때 임금일자리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었으며, 미취업자는 산업, 직종에서 미취업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6% 정도의 이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14> 종사상 지위에 따른 누적 이행률

시간	누적이행률(Nelson-Aalen Cum. Haz)						
	미취업자	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고용주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2000.5	0.0357	0.0000	0.0000	0.0000	0.0506	0.0000	0.1260
2001.5	0.0440	0.0000	0.0060	0.0000	0.0506	0.0816	0.2201
2002.5	0.0440	0.0000	0.0060	0.0000	0.0506	0.1150	0.3034
2003	0.0618	0.0000	0.0060	0.0000	0.0685	0.1150	0.3188
통계적 유의도			79.51**				

주: *=p<.05, **=p<.01

3. 근로빈곤층의 특성이 관찮은 일자리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Kaplan-Meier Method 분석 결과 관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전 년도 일자리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이 같은 결과를 산출한 것은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련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서로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다변량 생존분석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 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할 경우, 본 연구 모형에서 근로빈곤층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²¹⁾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산업 변수를 투입한 모형 1과 근로빈곤층의 일반적 특성과 직종 변수를 투입한 모형 2, 그리고 일반적 특성과 종사상 지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을 통해 다변량 생존분석(Discrete-time Multivariate Hazard Model)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1) 예를 들어, 산업 변수에서 농어업 분야, 직종 변수에서 농어업 근로자, 산업 변수에서 서비스업, 직종 변수에서 서비스 근로자 등이 그러하다.

<표 15> 다변량 생존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일반적 특성	성별 (여성)						
	남성	.4567 (.3167)	1.5789	.3962 (.3320)	1.4861	.7866* (.3058)	2.1959
	연령	-.0649** (.0201)	.9371	-.0665** (.0202)	.9356	-.0409* (.0189)	.9598
	학력	-.0467 (.0516)	.9543	-.0260 (.0527)	.9742	-.0111 (.0486)	.9888
	가구규모	.0218 (.1086)	1.0220	-.0382 (.1086)	.9624	-.0072 (.1045)	.9927
	혼인상태(미혼)						
	기혼이면서 유배우자	-.8672 (.5693)	.4201	-.4403 (.5573)	.6438	-.2822 (.5463)	.7540
	기혼이면서 무배우자	.0944 (.4932)	1.0990	.3008 (.4886)	1.3509	.3150 (.4849)	1.3703
	거주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0979 (.3100)	.9066	-.0087 (.3092)	.9912	.0036 (.3072)	1.0036	
노동시장 특성	산업 (미취업자)						
	행정·기타서비스업	1.2809* (.5025)	3.6000				
	금융·보험·부동산업	2.0779** (.5883)	7.9884				
	운수·창고·통신업	2.1227** (.6524)	8.3541				
	도소매·숙박·음식업	.1537 (.5780)	1.1661				
	전기·수도·건설업	.4413 (.8451)	1.5547				
	제조업	1.9642** (.5246)	7.1292				
	직종 (미취업자)						
	단순노무직			1.8207** (.5700)	6.1763		
	기능직			1.4269** (.5133)	4.1659		
	농어업 근로자			-.5713 (1.1264)	.5647		
	판매·서비스직			-1.5470 (1.0824)	.2128		
	사무직			1.7687** (.5629)	5.8635		
	전문관리직			1.5044** (.5395)	4.5016		
	종사상 지위 (미취업자)						
	자영업자					-1.8050 (1.0899)	.1644
	일용직					.5694 (.6141)	1.7673
임시직					.9761 (.5732)	2.6543	
상용직					1.8640** (.4333)	6.4498	
상수	-1.4503 (1.1784)		-1.6154 (1.1697)		-2.9416** (1.1287)		
사례수	1750		2099		1800		
Log likelihood	-193.41		-192.78		-186.93		
Model Chi2	67.26**		86.95**		83.08**		

주 : 1) 더미변수인 종사상 지위변수 중 가족종사자와 고용주, 산업변수 중 1차산업은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이행률이 0이므로 STATA에서 결과를 산출하지 않았다.

2) *= $p < .05$, **= $p < .01$

여기에서는 계수값과 Odds Ratio를 중심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근로빈곤층의 모형 1~모형 3 모두에서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의 b값은 모형 1에서 -.0649, 모형 2에서 -.0665, 모형 3에서 -.0409로 연령이 높을수록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낮아진 것을 보여주며, Odds Ratio는 모형 1에서 .9371, 모형 2에서 .9356, 모형 3에서 .9598로 연령이 1단위 높아질수록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은 약 5~6%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종사상 지위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성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성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성별 1의 b값은 .7866, Odds Ratio는 2.1959로 여성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한 결과와 앞에서의 분석결과와의 차이는 연령과 성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상관관계와 Kaplan-Meier Method를 통한 생존분석 결과에서 종속변수와 연령, 학력, 혼인상태 변수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 이러한 차이는 다변량 생존분석이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학력의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변수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연령과 성별 변수만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이행률을 비교하기 힘들었던 혼인상태 변수를 살펴보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으나, 모형 1~3 모두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b값이 음의 값이고, Odds Ratio도 1보다 작았으며,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b값이 양의 값이고, Odds Ratio가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준변수인 미혼상태에 비해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행률이 낮고,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미혼상태에 비해 이행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산업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1에서는 행정·기타서비스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1과 금융·보험·부동산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2, 운수·창고·통신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3, 제조업을 의미하는 산업더미 6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산업더미 1의 b값은 1.2809, Odds Ratio는 3.6000, 산업더미 2의 b값은 2.0779, Odds Ratio는 7.9884로, 산업더미 3의 b값은 2.1227, Odds Ratio는 8.3541로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더미 6의 b값은 1.9642, Odds Ratio는 7.1292로 이 또한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aplan-Meier Method 분석에서 행정·기타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제조업의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을 상기할 때 앞의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직종관련 변수를 투입한 모형 2에서는 단순노무직을 의미하는 직종더미 1과 기능직을 의미하는 직종더미 2, 사무직을 의미하는 직종 더미 5, 전문관리직을 의미하는 직종더미 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모형 2에서 직종더미 1의 b값은 1.8207, Odds Ratio는 6.1763으로, 직종

더미 2의 b값은 1.4269, Odds Ratio는 4.1659로 모두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더미 5의 b값은 1.7687, Odds Ratio는 5.8635이며 직종더미 6의 b값은 1.5044, Odds Ratio는 4.5016으로 모두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변수와 마찬가지로 앞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진 않았지만, 농어업을 나타내는 직종더미 3과 판매·서비스직을 나타내는 직종더미 4의 b값은 모두 음의 값이고, Odds Ratio도 1에 못 미치는 값으로, 기준변수인 미취업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변수를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상용직을 의미하는 종사상 지위더미 6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 종사상 지위의 더미는 미취업자인데, 최종모형에서 더미 6의 b값은 1.8640이며, Odds Ratio는 6.4498로, 미취업자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 이행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Kaplan-Meier Method를 통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로, 직전 년도의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은 미취업자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연령, 성별,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가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특성과 관련된 변수가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취업의 질을 고려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설정하고,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이행률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연구한 이유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며, 이들의 임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률과 노동시간의 상승을 전제로 하는 취업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근로빈곤층을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 빈곤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기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재정의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을 밝히고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의 이행률(Hazard Rate)을 Kaplan-Meier Method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은 대부분 40대 정도로 근로가능한 연령층이며, 중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이다.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대부분 도소매·숙박·음식업, 1차 산업 등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은 취약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도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가지고 빈곤가구의 특성을 분석한 금재호·김승택(2001)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빈곤가구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학력도 초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같은 빈곤층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일반 빈곤층과는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전체 분석대상인 652명 중 5년 동안 50명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였으며, 누적 이행률이 2000년도에는 3.68%, 2001년도에는 6.22%, 2002년도에는 7.71%, 2003년도에는 8.88%로 채 10%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주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자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임금일자리로 한정시켜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근로빈곤층의 인적자본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패널자료를 통해, 복수주기를 모두 고려하면서 자영업까지 포함시킨 괜찮은 일자리를 정의하여 분석하고, 이를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과 Kaplan-Meier Method 분석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연령, 학력 변수들 중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다변량 분석에서 연령과 성별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일반적인 특성들인 학력, 성별, 혼인상태, 거주지역 등은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들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 등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은 이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에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Kaplan-Meier Method에서도 직전년도 일자리의 산업과 직종, 종사상 지위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변량 생존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시장 관련 변수들이 직전년도 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는 근로빈곤층이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가능성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올해 기존 일자리에서 임금 인상, 상용직으로의 전환,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산업, 직종 등에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을 수긍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석은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직할 가능성이다. 이 또한 전자와 같은 산업, 직종에서 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괜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빈곤층은 다른 근로빈곤층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기회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Kaplan-Meier Method 분석과 다변량 생존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근로빈곤층이라는 같은 집단 내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 각각의 특성에 맞는 빈곤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함의 및 한계

먼저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던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새롭게 재정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 연구들(구인회,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이병희·정재호, 2001; 홍경준, 2004)은 대부분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연구하면서 근로빈곤층의 등장을 언급한 연구들이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주희, 1998; 이태진, 2003; 금재호, 2003; 홍경준, 2003) 또한 연구들마다 근로빈곤층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어 일관성있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개념정의한 근로빈곤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연구에서 정의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개념이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취업의 질’에 초점을 맞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빈곤정책의 핵심인 고용전략은 빈곤층을 단순히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중점목표(Work Goal)’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만으로 빈곤탈피와 자립성효과가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는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주된 문제제기였다. 기존 연구(김철희, 2003)에서 빈곤층의 취업여부나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ILO에서 정의한 ‘괜찮은 일자리’를 재정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취업의 질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이행률과 이행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이행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과 직전 년도에 종사하였던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현 빈곤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는가?

우선 근로빈곤층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두 가지 정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중요성을 고용지원정책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과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업훈련을

들 수 있는데²²⁾, 이러한 고용지원정책들이 단순히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근로중점 목표: Work Goal)이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시켜 장기적으로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소득중점 목표: Income Goal)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의 내용이 이러한 목적에 맞게 발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빈곤층들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은 것은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다²³⁾. 일자리의 질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소득보장정책과 관련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결과를 앞서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노동시장정책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의 중요성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면, 이들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2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이 근로능력이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라도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때 이들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같은 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근로소득보전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빈곤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ickert-Hauser & Scholz, 1995; Liebman, 1998; Greenstein-Shapiro, 1998; Johnson, 2001; 전병목·원종학, 2003에서 재인용)²⁴⁾.

다음으로 다변량 생존분석 결과,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과 성별이 이행률에 미치는 중요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젊은 층에게는 노동시장을 통한 빈곤탈출이, 연령이 높은 층에게는 2차적인 방법을 통한 빈곤탈출이 더 효과적일 것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고용지원훈련이나 소득보장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전 년도 일자리의 산업과 직업, 종사상 지위가 괜찮은 일자리 이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는데, 흔히 ‘질 낮은 일자리’로 표현되는 서비

22) 자활사업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사람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황덕순(2000)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상용직은 1996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창출된 일자리를 분석한 전병유(2003b)에 의하면, 중위임금근로 일자리에서의 정규직 일자리의 소멸과 하위임금근로 일자리에서의 비정규직화의 진전, 즉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근로빈곤층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4) Liebman(1998)의 추계에 의하면 소득 5분위의 최저소득층이 얻은 소득 비율이 76년에서 96년 사이에 전체의 4.21%에서 3.64%로 저하되었는데,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한 재분배로 3.77%까지 비율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ickert-Hauser&Scholz(1995)의 실증적 연구는 93년 근로소득보전세제 확충에 의해 약 50만 세대가 생활보호 수급상태에서 취로상태로 이행하였다고 추계하였으며, Greenstein-Shapiro(1998)은 96년 근로소득보전세제 실시에 따른 소득증가에 의해 460만 명이 빈곤상태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Johnson(2001)도 근로소득보전세제에 의해 99년에는 470만 명이 빈곤상태에서 탈피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궤궤은 일자리 이행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활발한 산업·직종 분야는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의 관심밖에 존재하고 있었던 산업분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변량 생존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빈곤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즉,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 집단은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2차적인 소득지원정책이나 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연구의 함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앞서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궤궤은 일자리의 정의과정에서 임금일자리만을 포함시킨 점이다. 자영업과 같은 비임금일자리가 외국에 비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점은 근로빈곤층이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연 비임금일 자리를 궤궤은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비임금일 자리를 궤궤은 일자리로 어떻게 개념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분석과정상에서 이행의 복수주기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본 연구는 한번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그 이후의 해는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만일 근로빈곤층이 1999년에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했다가, 2000년에 미취업자로, 2001년도에 다시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한 경우 1999년의 경우만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이 궤궤은 일자리로 이행한 이행률을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는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상의 한계로, 분석기간이 6년으로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보다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패널자료는 도시지역의 가구들만 표본에 포함시키는데, 농어촌지역의 사람들까지 분석에 포함시켰다면 다른 연구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병구(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공공경제』 7(1): 79-105.
- 강창희(2003). 「노동조합 임금효과의 재고찰: 개인의 직장내 지위를 고려하여」. 『제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II』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인구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 김교성 · 반정호(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우영 · 최영섭(1996). 「노동조합의 임금효과는 한국에 존재하는가?」 『노동경제논집』 19(1): 29-52.
- 김유선(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
- 김장호(1991).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의 노동조합 유무별 임금결정메커니즘의 차이」. 『경제학연구』 39(1): 21-44.
- 김철희(2003). 「저소득층의 특성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제 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II』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인구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 - 112.
- 금재호 · 김승택(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경제연구』 VIII(2): 511-539.
- 금재호(2003). 「일과 빈곤」. 『제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II』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인구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 나병균(2002). 『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 류기철(2001). 「취업형태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4(1): 207-230.
- 방하남 · 이상호(2004). 「좋은 일자리의 개념구성 및 결정요인의 분석」. 『제 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 한국인구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조사연구학회.
- 배무기(1990). 「노동조합의 상대적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 제 1집. 한국노동연구원.
- 송호근(2002). 「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36(1): 23-50.
- 어수봉 · 이태현(1992). 「노동조합의 임금평등효과」. 『한국노동연구』 제 3집. 한국노동연구원.
- 유경준(2000).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이두호 · 최일섭 · 김태성 · 나성린(1992). 『빈곤론』. 나눔출판사.

- 이병희·정재호(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28-150.
- 이상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제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태진(2003). 「근로빈곤계층의 빈곤요인분석」. 『보건복지포럼』 77: 51-71.
- 임세희(2004).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제 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장지연·호정화(2001).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한국사회학』 35(4). 한국사회학회.
- 전병목·원종학(2003).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전병유(2003a).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변동과 노동이동」. 『사회경제평론』 21: 327-368.
- _____(2003b). 「일자리 양극화 경향과 빈곤정책의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 정진경(2004). 「공공부조수급자의 복지의존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우현·유경준(1997). 「노동조합 가입성향의 결정요인과 노조의 상대적 임금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진재문(2001).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가능성과 한계」. 『한국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전』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87-106.
- 한국노동연구원(2000). 『KLI 해외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 홍경준(2002). 「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18: 105-127.
- _____(2003). 「근로빈곤계층의 사회보장 적용실태와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77: 43-56.
- _____(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제5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황덕순(2000). 「불안정 취업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 44: 63-82.
- Allison, Paul D.(1984).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Sage Publications.
- Bane, Mary J. and Ellwood, David T.(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 Blank, Rebecca M.(1996). *It Takes a Nation: A New Agenda for Fighting Poverty*.
- Esping-Andersen. G.(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New York: Oxford

- University Press.
- Gorham, Lucy. and Harrison, Bennett.(1990). *Working Below the Poverty line*.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 Levitan, Sar A., Gallo, Frank. and Shpiro, Isaac.(1993). *Working but Poor*.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cCall, Brian P.(1997). "The Determinants of Full-Time versus Part-Time Reemployment following Job Displace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no. 4
- Rima, Ingrid H.(1996). Labor Markets in a Global Economy: an Introduction, *The Working Poor: Is There a Market Solution?*. M. E. Sharpe.
- Ritter, J. A. and R. Anker.(2002). "Good Jobs, Bad Jobs: Worker's Evaluations in Five Countries." in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141. No.4.
- Schiller, Bradley R.(1998).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Ninth Edition. Prentice Hall.